



살인자본 한국타이어 비호하는 오복수 대전노동청장 해임하라!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또다시

10월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32살의 젊은 노동자가 기계설비에 깔려 들어가 사망했다. 고인은 식사교대를 하며 두 대의 기계를 다루던 중 ‘트러블 조치’ 작업을 하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 높은 한국타이어에서 또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자본 비호

대전노동청은 사고 다음날인 23일부터 금산공장에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전보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등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대전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면담을 통해 노조와 협의하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조사 이틀만인 26일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사측의 요청에 따라 안전시설 개선작업을 허용했다. 노동조합에는 아무런 얘기없이 배제한 채 사측의 요구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면담 과정에서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전노동청장은 한국타이어 사망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사측이 조금이라도 빨리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 비극적으로 죽은 노동자와 그 동료들의 아픔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노동적폐 오복수 대전노동청장 해임하라!

금속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자본편향적인 대전노동청장을 해임하지 않고는 우리 지역의 노동 적폐가 청산될 수 없다. 그 스스로가 노동적폐임을 증명한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LG생활건강노조 파업투쟁에 연대를!

LG생활건강 노동조합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9월 20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후 아직까지 임단투가 풀리지 않고 있다. 31일 본사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으로 많은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LG생활건강은 청주를 비롯해 전국 4곳의 생산공장, 9개 물류센터, 18개 면세점에 86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LG생활건강은 각종 성희롱,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임단협 중에는 실무교섭을 통해 제시된 사측 수정안을 돌연 대표이사가 파기하여 교섭이 결렬되기도 했다. 또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임단협을 파행으로 만들어왔다.

LG생활건강 노조의 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연대가 필요해졌다. 투쟁 참여부터 투쟁기금 모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를 보여주자.

* 이번주 일정 *

- 한국타이어 비호하는
대전노동청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10/30(월) 10:30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LG생활건강 연대 상경투쟁
10/31(화) 12:00 서울 LG광화문 빌딩 앞
- 콜텍 투쟁 10년 투쟁문화제
10/31(화) 19:00 서울 광화문 농성장